

中語中文學科의 특성과 발전을 위한 提言

李 充 陽

(高麗大 中語中文學科)

1. 序論 : 學問 發展의 趨勢

최근 우리나라는 북방 정책의 추진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까지 중공이라고 부르다가 중국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자유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이런 호칭의 변경은 세계 추세 속에서 이념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구를 의미한다. 동시에 서해안 시대의 개막, 산동반도 등의 개방 등은 한·중 양국의 정책 방향이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더우기 한·중 무역 사무소 개설 등은 객관적으로 극동 아시아의 새로운 기류로서 또 우리나라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본다면,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지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역설적으로 한·중 관계는 단순한 지정학적 관계로만 귀일시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다양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우리 선조들은 동양 문화권 속에서 중국과 함께 다양하고도 독특한 많은 문화적·학문적 업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강제 통치 시대 이후, 특히 1945년 이후의 동서 냉전 체제와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중국에 대한 우리의 학문적 접근이나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극히 한정된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70년대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와

동서 대립의 무드로 인하여 서구 및 일본에서의 중국 연구열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중국 연구나 접근이 어려웠다. 그 때문에 중국에 관한 선조들의 업적에도 못미치는 연구 분야가 나오게 되고, 일본이나 구미 여러 나라의 연구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생겼다. 최근에는 우리 자체의 연구보다는 일·미 등의 중국 연구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상황도 상당히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의 현 실정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연구의 자세와 접근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우리의 변화하는 속도와 그 실정을 볼 때, 현대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해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문화라는 광범위한 범주 속에서 그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중요한 요소 중 그 기본은 언어·문자의 해독이며 그 다음은 문학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이 기본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가 중어중문학과이다. 이 학과가 대학에 설치되기 이전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던 우리는 그 동안 학문을 오로지 학문을 위한 문자로 익혔을 뿐 말하기 위한 언어로 배우지 않았다. 한문학

에 달통했다는 사람이라 해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현대 중국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으로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문자와 언어가 시대에 따라 분리·발전해 온 중국은 1917년경에 시작된 문화혁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언어 시대에 들어 섰다. 즉 그때까지 쓰던 한문을 폐지하고 한족의 언어를 중심으로 중국의 표준어와 글로 삼아 현대 중국어로 정착시켰다. 이것은 언문 일치의 언어로 한자는 뜻 글자에서 발음을 나타내는 쪽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문과 중국어는 서로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엄격히 말하면 다른 언어 체계를 이룬 두 개의 언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한문자 학습에만 치중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중어중문학과가 설치된 이후 중국 언어 교육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한문 연구 방법에 좀더 치중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정책 변화와 북방 정책 추진과 국제 조류의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능동적 변화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어중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해 보면서 새로운 우리 어문교육의 추세와 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한다.

2. 特性과 現況

1) 특 성

중어중문학과는 언어 문장이 고대 중국의 한문과 현대 중국의 중국어로 완전히 구분되어 사실상 두 개의 언어 문장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그 특성을 살펴 보면, 한문이란 중국의 고대문을 의미한다. 이 고문이 우리 문화에 널리 작용하여 다소 우리의 것으로 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문자라는 점은 변할 수 없다. 한자문화권인 우리는 한자를 문장에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와는 좀 다른 우리나라식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며 또 읽는 발음도 상당히 다르다. 이 점은 한문문화권에 있었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고대 한문에 근

거한 것으로 그 근본은 같다고 하겠다. 이 한문을 이조 시대까지 지식인의 학문 활동, 과거 시험, 행정 문서 등 모든 분야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고전 문학도 한문으로 된 것은 중국 고대 문학과 연계하여야만 할 것이다. 중어중문학과와 고대 부문은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적으로 아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다른 외국어 문학과는 구별해야 한다. 즉 한문으로 된 문학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 고대 문학은 순수 문학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복잡한 학문을 내포하고 있다. 즉 중국은 일찍부터 유교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삼아 그 사상을 암송해야 하며, 과거 시험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시문을 통한 사상과 능력을 테스트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고대 문학은 정치 사상과 직결되는 문학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외에 도가, 불교 등의 사상적 영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 고대 문학을 공부하려면 먼저 이런 사상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이것은 각 시대의 상황과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고대 문학은 순수 문학 연구와 동시에 사상·철학·역사 등을 광범위하게 필수로 해야 그 문학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세째,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은 광대한 토지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밀접한 관계 때문에도 중국 현대어와 그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중국 문학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중국 문학은 고대 한문도 대체적으로 정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오늘의 중국 현대어 문학도 정치 사상과 떼어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서는 중어중문학과는 고대 중국뿐 아니라 오늘의 중국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종합적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및 협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어중문학과와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

든 분야를 다 취급할 여건이 충족되었는가는 것이 연구해야 될 것이며, 이런 방대한 양을 중어중문학과라는 이름 속에서 과연 효과적인 교육이나 연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 활

지금까지 중어중문학 관련 학과는 국내 116개 대학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54개 정도가 된다. 그것도 설립 10년 미만인 학교가 대부분이다.

〈표 1〉 중어중문학과의 설립 현황

대 학 명	학 생 수	교 수 수	대 학 명	학 생 수	교 수 수
서울대	83	7	전남대	249	6
한국의대(서울)	345	8(1)	전북대	215	4
(용인)	200		부산대	206	5
성균관대	190	4	경북대	266	4
고려대(서울)	215	4(1)	동국대(경주)	190	4
(조치원)	172	3	경희대(용인)	215	4
숙명여대	145	4	명지대	196	4
단국대(서울)	190	4(1)	경남대	190	4
(천안)	245	3	충북대	178	6
연세대	172	4	계명대(중어중문)	224	3
청주대	196	3(1)	(중국학과)	178	
영남대	181	3(1)	조선대(중어학과)	160	3(1)
충남대	215	4(1)	성심여대	148	3
인하대	236	3(1)	부산산업대	192	4(1)
경상대	178	4(1)	동의대	144	3
건국대	190	3	강원대	178	2
이화여대	206	3	경기대	196	3
중앙대(안성)	245	4	목포대	185	4
성신여대	184	3(1)	울산대	236	3
국민대	218	5	원광대	196	3
한양대(서울)	184	3	효성여대	172	4
(반월)	276	3	한림대(중국학과)	128	2
대구대	190	3(1)	경원대(신설)	30	
부산외대	255	3(1)	순천향대(신설)		
서원대	190	3	배재대학(신설)		
공주사대	110	5(1)	한국방송통신대학		5
등아대	130	3(1)			

※ 홍순효 교수, "중어중문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참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12.

()안은 외국인 교수

초기 1945년 서울대학교에 중어중문학과가 설립되었다. 그후 약 10년 후 1954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중국어과, 1955년에는 성균관대학에 중어중문학과가 설립되었다. 그후 10년이 지난 뒤 경희대학교 외국어교육과에 중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현상도 중어중문학과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을 말하며, 이 시기는 사실상 교육 여건의 미비로 교육다운 교육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72년부터 고려대, 숙명여대, 단국대, 연세대 등에서 계속 학과 증설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양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는 매년 2,500명 정도로 갑자기 팽창하였다. 또 학과 이름도 중어중문학과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어과가 5개교, 중국학과가 2개교, 중국어교육과가 1개교로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과에서 연구·교육하는 내용은 명칭에서 비롯되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같아서 각각의 특성을 뚜렷이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과 내용과 전공 교수 부족 등이 문제되며, 이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된다. 54개 대학 중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20여개교,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이 8개교뿐이다. 학문의 영역은 갈수록 방대해지고 전문적으로 세분화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원의 증설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수 확보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중어중문학의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고대 한문 문학, 현대 중국어 문학, 어학 등 전공 교수의 적당한 배분이 바람직하다. 그간 한문 문학 교육에 치중한 관계로 이 방법의 전공 교수는 수적으로는 그런대로 별 문제가 없으나 현대 중국어문학과 어학 전공 교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기존 한문 전공 교수들이 지나치게 자기 분야를 고집한 데도 그 원인이 크다 하겠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분야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教科課程 編成과 內容

1) 교과과정 편성

이런 상황에서 편성된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국내의 몇 개 대학을 선정하여 모델로 하고 이들 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모델 대학은 전남대, 연세대, 건국대, 원광대, 충북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했다. 검토 내용은 이들 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어중문학과 전공과 관계 있는 과목만을 추출하여 교양 필수 과목과 전공 필수,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여 어학 분야를 중국어와 한문, 문학 분야를 고전 문학(한문)과 현대 문학(중국어)으로 나누어 보려 한다.

먼저 교양 필수 과목에서의 중어중문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명과 이수 시기, 학점 수를 살펴 보자 한다(아래 <표 2>를 참조할 것).

이 현황을 살펴 보면 중어중문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① 중국어를 교양 필수에 편성한 학교는 5개 대학, ② 한문과 중국어를 동시에 지정한 학교는 2개 대학, ③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학교도 2개 대학이 있다.

또 이 교양과목 이수 시기는 대개 1학년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대학은 이수 시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수 기간은 한 학기당 배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1,2학기에 걸쳐 배정되어 있는 대학도 있다.

이 편성 현황은 중국어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접촉하지 않았기에 이후의 어학 능력 개발을

<표 2> 중어중문학과 관련 교양 필수 과목, 이수 시기 및 학점 수

대학	과 목 명	이수시기	학점수
A	한 문	1-1	2
	중국어(제 2 외국어)	1-2	2
B	중국어 1, 2, 3	1-1	3
C	중국어	1-1	3
D	관련 과목 없음		
E	관련 과목 없음		
F	한 문	1-1	3
	중국어	1-1, 1-2	4
G	중국어		4

위해 1,2 학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수 시기도 1 학년에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중국어와 한문은 중어중문학과와 교양뿐 아니라 일반 교양으로 해야 한다.

이들 7개 대학의 중어중문학과 전공 과목을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개설 과목을 어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누어 본다.

어학 분야는 중국어와 한문으로 나누고 문학 분야는 한문으로 된 고전 문학과 중국어로 된 현대 문학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어학이라 함은 언어 교육도 포함하며 중국 고전 문학은 한문에 관련된 과목을 총칭한다. 통통 분야의 과목은 교과 내용에서 중국어 또는 현대 ××× 등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구분이 없는 것은 고전 문학 범주에 더 비중이 크다고 보았다.

〈표 3〉 전공 과목의 분야별 과목 수

대 학	전공 과목 수	어학분야 과목수			문학분야 과목수		
		중어	한문	소계	한문	중국어	대어
A	32	10	5	15	13	4	17
B	32	13	1	14	16	2	18
C	31	17	3	20	9	2	11
D	30	12	2	14	12	4	16
E	32	10	3	13	16	3	19
F	35	14	2	16	17	2	19
G	32	13	2	15	14	3	17

2) 교과 편성 내용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다수 대학의 중어중문학과는 어학과 문학을 동시에 안배하고 있다. 표에 나타난 C 대학과 그의 국내 몇 개 대학에서는 중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중국어 교과목은 대체로 비슷하나 이용하는 중국어 교재는 각양으로 발음 부호나 문법 체계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C 대학 이외에는 대다수 대학이 어학과 문학의 비중이 비슷하고, 다만 E 대학이 문학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문학 중에서도 거의 모든 대학이 한문 문학에 치중하고 현대 중국어 문학의 개설 과목은 2~4 과목 정도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학

과 소속 교수들의 전공과 의사에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거의 한문 문학 일변도의 상황에서 각 대학이 어느 정도 현대 중국어 문학 부문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대로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의 연장으로서 현대 중국어 문학 과목 개설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미비한 상황이다. 또 한문 문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한문 기초 교육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비하다. 중국어 과목은 많으면서 어학 능력을 더욱 높여 줄 현대 중국어 문학 과목이 적고, 기초 한문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한문 문학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데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문 문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기형적 학과목 개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학 능력의 제고와 문학 연구 수준을 높이려는 두 가지 방향을 다 같이 성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학과목 배분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우리의 대학 현실도 감안하면서, 목표를 갖고 새롭게 조정해야 할 과제이다.

부족한 교수와 미비한 학술 자료 및 열악한 교육 시설하에서 중어중문학 각 분야를 뚜렷한 목적성이 없이 적당히 배분하고, 몇 가지 필수적인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성과를 최대로 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4. 發展 方向

1) 교과과정 개편의 방향

현 중어중문학과와 교육 방향은 크게 학자 양성 교육, 전문인을 위한 교육, 일반 교양과 지식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학자 양성 교육을 위한 기초로서의 교육을 살펴 보자.

중국 고전 문학을 전공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문을 읽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며 쓰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중국 고전 문학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교과과정들을 보면 한문 기초 과목은 개설 수도 적고 체계적 한문 교육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따라서 현 상황은 일면 한문을 배우면서 문학도 연구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한문을 읽는 데 힘들기 때문에 단편적인 번역과 감상에 그치기 쉬워 사실상 문학을 학술적으로 분석·연구하는 대학다운 교육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중국 고전 문학은 문학 자체로만 보고 읽고 감상하는 이외에 철학 사상, 정치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해야 할 과목만도 방대하다. 이 고전 문학 분야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도 대학 4년은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실질적 교육 효과를 얻을 것인가는 연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현대 중국어 문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에게 고전 문학 연구자와는 상반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즉 교과과정 기초 어학 분야에는 중국어 과목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급화하는 과정과 현대 문학을 연구할 기본이 되는 학과 과목 개설이 극히 미미하다. 현대 문학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 중국어 아닌 우리에게 낯선 문화를 가진 나라의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 문학을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의 역사, 철학 사상, 사회 문화 등을 기초하여 연구해야 하는데 개설 과목조차 몇 과목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다. 특히 연구 대상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는 이제 상당한 관계를 갖게 될 나라이기에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는 현재 개설 과목을 담당할 전공 교수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형식적 교육에 그쳐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이 분야의 필요성은 이미 상당히 증대하였기 때문에 시급히 학과목 체계를 세우면서 이 분야 전공자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중국 문학을 중국어 교육 연장선 상에서 보면서 하나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 고전 문학을 한문 교육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어중문학과와 특성을 살리려면 한문과 중국 고전, 중국어와 현대 중국 문학으로 그 특성 분야를 나누어야 대학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 문자

교육도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학 분야도 이런 문학 일반 형식과 같이 구분해서 그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대다수 대학이 언어와 문자 교육 이외의 학문적 어학 분야는 학자 양성 기본 교육으로는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중국어와 한문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든지 그 분야를 특성에 따라 나누어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중국 고전 문학의 기본이 되는 한문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한문 교육을 하며 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한문학 연구에도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을 외국어와 같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 중국어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중국어이다.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해당 외국어를 습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어중문학과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초 중국어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여타의 학과와 다르게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한다.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살리는 교과과정을 편성한다면 학자 양성 기본 교육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언어 교육의 강화와 문학 이외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지리 등의 교양을 위한 교과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중어중문학과와 상황 속에서 언어 교육 강화를 통해 일반 중국어 외에 시사중국어, 무역중국어, 경제중국어 등의 분야를 좀더 개발해야 한다. 또 현대 중국 상황의 이해를 돕는 과목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 한문을 전문으로 해득하고 번역하여 연구하는 인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 교과과목 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어중문학과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배울 수 없으므로 그 교과과목 편성의 중심을 중국

어 중심과 한문 중심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제 3의 방법은 지금의 교과목처럼 적당한 분배의 편성을 하되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이나 교수 방법 등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 어렵다면 교과목을 많이 증설하여 격년제 개설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 전공별 분류 모형

(1) 중어중문학과와 세분화

① 중국어학 중심 학과

- 중국어와 한문만의 체계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 한문을 교육 중심으로 한다.
- 중국어를 교육 중심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경우, 언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학에 필요한 관련 학문과도 쉽게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은 물론 어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 능력을 위해 문화, 역사,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교육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광동어, 상해어 등 실질적인 언어 능력도 키울 수 있어 실질성과 특성 교육도 가능하다.

② 한문 문학 중심 학과

- 한문과 한문 문학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한문과 중국학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을 위주로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우, 한문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한문 연구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순수 문학만의 교육도 가능하고, 중국학 전체를 섭렵하면서 분야별 중점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한문과도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학다운 학문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학 연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③ 현대 중국어 문학 중심 학과

- 중국어와 순수 문학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 중국어와 현대 중국 문학에 관련된 전반적 교육을 위주로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대 중국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현대 중국 문학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동·서양의 문학 이론과 주장 등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도 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북방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에서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중국어와 중국 전통, 현대 중국 문화 교육 등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 서로 다른 유형이라 해서 지금까지 교육 내용의 중심을 이문·한문, 전통 사상 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교육 중심을 그렇게 나누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그 대학별 특성도 살려 보자는 의도이다.

(2) 중국어 문학과와 교육 내용

또 교육 내용도 좀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① 중국어 교육 : 대개의 대학이 현재 대만의 '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글자도 대만에서 쓰는 정체자를, 발음 부호는 대만의 추음 부호와 중국의 병음 부호를 혼용하고 있다.

물론 대만의 표준어인 '국어'도 북경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도 북경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서로 의사가 소통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교육하든 효과는 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는 현재까지 북경을 중심으로 하여 단어가 그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 조정되었다. 또 대만과 중국은 서로가 이질적인 사회 발전을 해왔다. 이런 점만을 감안한다면 사용하는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 언어 사용 인구 비례로 보나 지역 넓이로 보나 10억 인구의 중국과 2천만 인구의 대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인지 모

르나 우리나라와 대만의 대학 이외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국어라고 부르는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를 교육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와 세계 추세 속에서 우리 학계도 중국어 표준을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동시에 글자도 중국과 세계 일반이 쓰는 간체자를 기본으로 교육해야 한다. 중국에서 근 20년간의 간체자 교육으로 이 교육에 익숙해진 중국인들은 정체자를 쓰는 데 불편해 할 뿐 아니라 이미 읽기도 힘들어 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약자를 사용하면서 유독 증문과에서만 중국어 교육에 정체자를 고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여겨진다. 단지 정체자는 대만의 서적이나 또는 한문 교육에 필요하므로 간체자를 기본으로 하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발음 부호인 중국의 병음 부호와 대만의 주음 부호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② 전공 과목의 교육 내용 : 외국어나 외국 문화를 말할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그 나라의 현대 언어나 현대 문화를 우선적으로 의미한다. 독일어, 영국어 하면 그 나라의 고대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언어를 말한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중국어중국문학이라 함은 우선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를 의미하며 중국문학이라 함은 우선 현대 중국 문학을 의미한다. 그 다음 고대 언어, 고대 문학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 상황 때문도 있었겠지만 중국문학은 고대 한문 문학을 주로 의미했다. 이것을 한국적 특성 교육이라 보기에선 무언가 어색하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하는 교육 풍토이기 때문에 마치 중국어중국문학이라 하면 주로 고대 중국 한문학을 교육·연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많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또 고대 중국 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한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언어로서의 한문과 문학 내용을 동시에 교육·연구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한문 해석과 감상 수준에 머무는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

능하다면 원문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먼저 그 전체 내용을 알도록 번역본을 이용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 실정을 예로 들면 경서 강독, 당시 강독, 고전 강독 등 극히 일부분의 문장만으로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한문 교육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중국 문학 비평, 시경, 초사, 문언 소설, 명칭 소설, 당송시 연구, 당송 산문 등의 과목을 이미 한문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학생이 읽고 연구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과목 이름과 교육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명실상부한 대학다운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앞에 언급한 분야를 축소하거나 번역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③ 현대 중국 문학 교육에 대해서 : 한문 문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독 등 중국 언어 교육을 주로 하는 것과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과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문 문학을 연구·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유가 사상, 도가 사상 등 중국의 고대 정치 철학 사상과 역사를 교육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 문학을 교육·연구할 때도 당연히 현대 중국 문화, 역사와 그 정치 사상 등을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 부분 교육에 있어서는 고대 중국 문학 교육보다 좀 다른 정치 사상 문제가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고대 한문 문학을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참된 교육이나 연구가 될 수 없다. 너무나 이질적인 현대 정치 사회 변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를 한 전문 지식인이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인 양성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전공 교수의 공조 체제 구축

그간 증문학계는 교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전공별로 교수를 충분히 확보한 대학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대하고 많은 분야를 몇 분 교수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을 교육·연구하는 것보다는 중어중문학 모든 분야를 교육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수들은 전공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가 약해지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타 학문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전공의 세분화 추세에 본의 아니게 역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중국 한문 문학 중에서도 한시 전공만이 학문인양 소설과 희곡 심지어는 현대 문학 자체를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자기가 차지했던 위치를 지키려는 안간힘 속에서 중어중문학의 다양한 발전과 세분화를 저해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형식적 학점에만 매달리게 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연구 대상이 넓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한된 시간에 일정한 교육을 한다는 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피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공 교수가 필요하다. 이 점은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해 학교간의 전공이 다른 교수가 공조하는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학교간의 분담을 통해서 연구 분야를 세분하고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시도해 본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우기 대학원은 전공을 세분화하여 전국 모든 대학을 동일권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학교간의 공동 교육을 모색해 보는 것도 전체 중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볼 직하다. 즉 앞에 제기한 학교의 특색을 살려 특성 분야를 제시하고 대학원생들은 어느 대학에 재적하든 타 대학이라도 전공 교수를 찾아 지도를 받도록 한다면 현

제의 심한 전공 교수 부족과 그러한 전공자를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 發展을 위한 提言

첫째로 중어중문학과를 세분화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방대한 양을 교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여건상 양적인 교육에 치우치고 질적 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어중문학과를 중국어학 중심·한문 문학 중심·현대 중국어 문학 중심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는 각 학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한문 문학 중심은 중국 한문 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국학을 발전시키고 역사 정신을 바로 잡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이러한 분류 속에서 교과 내용을 재편성해야 한다. 내용 중 중국어 훈련은 중국의 보통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셋째로 대학원 교육 등은 전국 대학을 단일화하거나 지역별 학교간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각 분야의 전공 교수가 공동 지도와 강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국어 훈련은 현지에 가서 습득하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중국어와 한문·중국 문학 등은 일반 교양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로 중국어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파견·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로 전공 교수를 분야별로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4명 수준을 탈피해야 한다. *